

광주일보 MILLET 공동주최
 MOUNTAIN BY EXPERIENCE
 엄홍길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16좌 등반

〈7〉 장흥 천관산



지난 23일 장흥 천관산에서 진행된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에서 광주·전남·전북지역 등산 애호가 1000여명이 역사평원을 줄 지어 산행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만추의 가을산...역새풀 고개 숙여 “어서오세요~”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의 7번째 산행은 호남의 5대 명산 중 하나인 장흥 천관산(해발 723m)이었다.

가을 역새로 유명한 산인 탓에 산 입구에서부터 역새들이 등산객들을 반겼다. 출발지인 탐동 주차장은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이날 산행에 참여한 원정대 숫자가 무려 1030여 명으로 북적거림이 더한 것으로 보였다.

500여 명으로 출발한 원정대 숫자가 7번째 산행을 맞으면서 10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참여자들도 인원이 많아서인지 산행이 더욱 즐거운 모양이다.

이날 산행은 장천재 입구에서 출발해 양근암-연대봉-환희대-구정봉-선인봉을 거쳐 다시 장천재 입구로 돌아오는 5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코스로 짜였다. 산행을 시작

땀과 지리 땀과였다. 사각거리는 낙엽 길을 1시간 30여 분을 올라 정상인 연대봉에 섰다.

망대에 올라 보면 노력도 앞바다가 펼쳐지고, 그 위로 많고 작은 섬들이 줄지어 서있다. 뒤로 돌면 연대봉에서 환희대로 이어지는 4km 구간의 역새 능선이 펼쳐진다. 사방이 탁 트인 정상에 오른 원정대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절로 나왔다.

하지만, 탄성도 잠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듯 원정대들은 바람을 피해 역새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삼삼오오 자리를 잡았다. 역새를 바람막이 삼아 산 정상에서 정겨운 동료끼리 웅기쭈기 모여 먹는 점심시간은 웃음 꽃으로 가득했다. "그래도 산 정상에서 까먹는 점심이 최고야?" "아퀸 단 일화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심 시간 이야기 대부분이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탓에 일부에선 야권단일화도 단연 화제였다.

점심을 마친 원정대들은 본격적으로 천관산을 뒤덮은 역새 구경에 빠져든다. 하지만, 겨울 초입의 천관산 역새는 '대향연'의 막을 내리는 중이었다. 이미 한풀 꺾인 역새는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고 부서질 듯 몸을 떨어냈다.

매년 10월이면 이곳 산 정상 5만여 평에서 황금빛 자태를 뽐내며 넘실댔을 역새들이 '대향연'의 임무를 훌륭히 마치고 하나 둘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연대봉에서 역새 평원을 지나는 길은 마치 하늘을 향해 쭉 뻗어있는 길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1000여 명의 원정대가 줄지어 역새평원을 걷는 모습은 마치 미지의 푸른 하늘을 찾아가는 탐험대의 행렬로 보였다.

역새평원 끝자락에 위치한 환희대에 도착할 즈음에 원정대들의 입에서는 또 한 번의 탄성이 쏟아졌다. 수십 개의 기암괴석과 봉우리들이 마치 키재기라도 하듯 서로 하늘을 향해 누가 더 큰지를 뽐내며 하늘과 맞닿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산 정상 능선을 따라 늘어선 기암괴석들은 오선지에 그려놓은 음표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내리막 길이 험해 하산하는 원정대들의 발길이 느려졌다. 길이 좁고, 바위가 많아 일부 구간에서는 '체중'도 빛어졌다. 하지만, 손을 잡아주고 서로 길을 양보하며 아무 사고 없이 장천재 입구에 닿았다. 5시간의 힘든 산행이었지만, 장천재 주변에 여전히 알록달록 예쁜 색을 띤 단풍들이 원정대들의 피곤함을 씻어냈다. 원정대들은 마지막 저물어가는 가을 정취를 담아가기 위해 사진을 찍느라 피곤함도 잊은 듯했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1000여명 원정대 “하하 호호” 5시간
 하늘에 맞닿을듯 장대한 기암괴석
 4km 역새능선·탁트인 정상에 기승 뱅~

하면서부터 이색적인 이정표를 볼 수 있다. KBS의 '1박2일' 프로그램에 소개된 탓인지 '강호동, 이수근 길'과 '이승기 길'이 기존 이정표에 나란히 붙어 등산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양근암에서 연대봉까지 오르는 길은 경사도가 45도에서 심지어 80도에 이르는 오르막길이 계속돼 한동안 오르면 숨이 턱에 찰 정도다. 바위길이 많고 발에 밟히는 돌맹이가 많아 산행 초보자들에겐 조금 힘들어 보인다.

돌이 많아서인지 등산객들이 쌓아놓은 돌탑도 여기 저기서 눈에 띈다.

종턱쯤에 올랐을 때는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세졌다. 소설(小雪)이 막 지난뒤인이라 바람의 끝은 더욱 매서웠다.

그래서인지 산 중턱에서부터는 녹색의 생명을 찾아보기 힘들다. 누렇게 변해가는 잡목 숲뿐이다. 봄부터 푸른 싹을 틔웠던 들들은 한 해의 생을 마감하는 중이었다. 모든 영양분을 소진, 말라비틀어진 낙엽들은 산아를 이리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에 참여한 등반객들이 엄홍길 대장과 함께 천관산 정상 능선을 지나며 취재진에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TRUE PRODUCTS, REAL PEOPLE



“힘내”
 “당신이 좋아”
 “잘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